

MAR (Merry-go-round Artists Relation)

마르는 무대예술을 하기보다는 무대실험을 한다는 말에 스스로없이 동참한 공동체이다. 마르는 무대공연예술의 장르분류가 무의미해진 시대에 무용, 연극, 미술, 영상, 음악 등 장르와 장르가 즐겁게(merry) 돌아가면서(go-round)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룹이다. 물론 이러한 예술적 발언의 형태는 이제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AR는 장르와 장르의 관계변화를 더욱 밀도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 생산력이 되는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그 때 무대의 신비한 힘은 달라질 수 있다.(since 1998)

마르는 부산의 소극장운동을 위한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와 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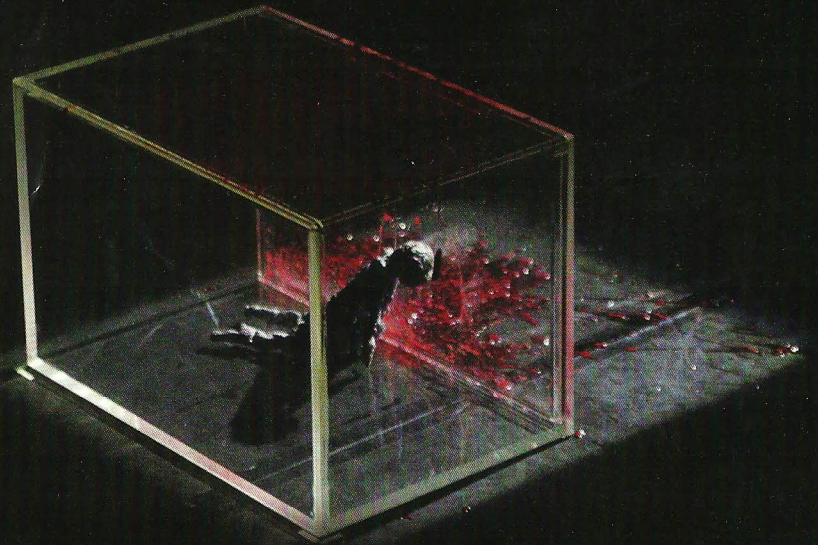
무대공연의 출발은 현실을 용납할 수 없을 때 가능하다. 무대실험이란 신선하거나 충격적인 그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실험은 공연을 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극장은 몽상의 장이어야 한다. 우리가 열린소극장 예술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 공동체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울컥일 때 서로의 눈빛이 맞아야 한다. 그러면서 「나」가 「타자」되기를 공부하는 곳이다. 무언가 울컥이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몸달야한다는 것이다. 창작자들의 몸달야함은 작품의 생명력의 근원이다.

- 휴먼 프로젝트 사람 ■ 마임극단 세진 ■ 미지 씨어터 ■ 극단 차이 ■ 마르
- 포토그래퍼 김도웅 ■ 배우그룹 배관공 ■ 극작공방 빙공 ■ 극단 열린무대 ■ 극단 시나위

<http://cafe.naver.com/opentheatre>

몬스터 monster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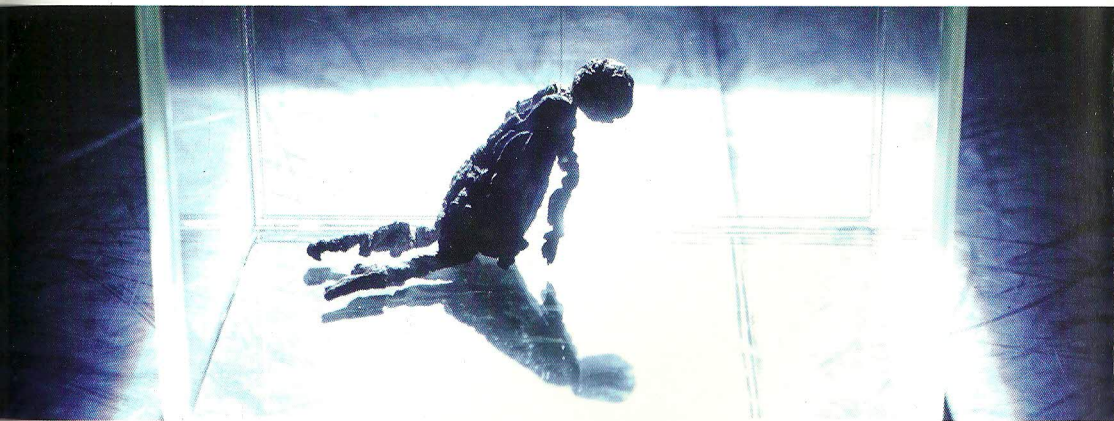


2007. 9.14 ▶ 9.30 목·금 8:00 토·일 5:00(월·화·수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명륜동 지하철역 맞은편)

STAFF & CAST

제작	Production	예술공동체	마르
기획	Management		윤지은
안무	Chorgraher		강희정
연출	Director		구현철
음악	Composer		전현미
무대디자인	Set Designer		하현관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er		권진경
조명	Lighting		이여진
사진	Photographer		김도웅
디자인	Design Works		인터페이스
행위자	Performer	문리욱, 조창주, 이정임, 백선우, 강수빈	
스폰서	Sponsor	아웃백, 동래점, 미래 메인티넌스	
후원	Support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	



MONSTER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나'라는 몸 속에는 나보다 더 많은 '타자'들이 서식하고 있다. 내가 타자들로 이루어져있다는 인식은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인식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과 관계맺음의 고리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조악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한 관계맺음의 방식은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인데'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혹은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산다'이다. 우리의 얼굴은 불안과 분노의 자의식을 버리고 외롭고 불쌍한 괴물이 되어간다.

공포나 괴수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괴물은 생각이 없기(또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 이 때 괴물은 가장 공포스런 대상이 된다. 공포는 '나' 안에 숨겨진 타자의 정체성을 불편하게 보여준다. 불편함은 괴물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게 혐오를 드러내며 저 잔혹한 괴물성보다 자신이 낫다는 윤리적 합리화를 거친다. 그런 의미에서 괴물은 가장 탁월한 타자다.

『몬스터』는 몸과 몸이 만나는 개인적 관계를 들여다 보는 과정이다. 내 몸은 그녀의 몸이다. 그녀의 욕망이 내 욕망이듯이, 또 내 몸은 그의 몸이다. 그의 욕망이 내 욕망이듯이, 그녀와 그, 혹은 그녀와 그녀, 그와 그의 몸이 만나는 방식은 어떠한가. 의식적으로는 내 몸인 것처럼 움직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아닌 것처럼 움직인다. 몸의 관습은 일상의 관습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열매감은 나의 문제이자 타자의 문제다. 그리고 동시대 사회의 문제다. 가장 사적인 연애행위마저도 남자와 여자, 혹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문제다. 시커먼 꼬리를 발견하지 않아도 가장 일상적 철학 '어쩔 수 없잖아'는 우리를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 '떼거리'로 만든다. 일상의 파시즘은 그렇게 생긴다. 세상에 등장했던 괴물들은 죽어가면서 '나'가 누구인지 정말로 애절하게 묻는다.

공연문의 051) 555-5025, 019-507-7506 인터넷예매 TICKET365 www.ticket365.co.kr
지정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동보서적, 영광도서, 남포문고, 면학도서, 대한도서, 향학서점